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목회자세미나 10주 행진 시작”

9월 15일 휴강 ... 4당 대선 후보 모두 강사로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8일 강남 YMCA대강당에서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느 학기와 마찬가지로 강남YMCA대강당은 가르치기에 앞서 배우려고 모인 목회자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교시에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있었고, 제 2교시에는 허영 교수(연세대)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제하의 강의를 있었다.

이번 학기는 11월 17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은 휴강한다.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한 이번 학기에는 이 분야의 석학 뿐 아니라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표들을 초빙해 그들의 국가관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민주당 대표로 추대된 조순 후보가 뒤늦게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여할 뜻을 강력히 비쳐움에 따라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10월 20일 제 1교시에 조 후보의 강연 기회도 마련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요즈음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자칫하면 각 당 후보들의 강연 때문에 세미나장이 선거 연설향

으로 변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참가자와 봉사자들에게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에 맞춰 이 나라 석학들과 지도자들의 강연을 듣고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서울교회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주최로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성경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1992년 개원하여 올해 하반기로 12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는 매학기 7백 ~ 8백명 가량의 목회자가 등록하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자기를 갱신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교회의 일치와 협력, 부흥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

이 세미나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신학세미나에는 장로교 목회자(72.7%)뿐 아니라 감리교(6.0%), 성결교(4.6%), 침례교(4.8%), 하나님의 성회(4.3%) 등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교과를 초월하여 참석하고 있다.

서울성경대학 일제히 개강 ... 말씀공부 열기 고조

지난 주간에 서울성경대학 마가복음반, 베드로서반, 아가반, 다니엘반, 욥기반(아담반)이 일제히 개강했다.

성경학교에 총 336명의 성도들이 등록해 수강하면서 교회 전체에 말씀공부에 대한 열기가 번져가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청강하는 성도도 많이 있어 전

체 수강인원의 파악이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번째 강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등록을 받으므로 첫 강의를 놓친 성도들도 다음 강의부터 참여할 수 있다.

서울성경대학 각 반의 등록인원은 좌측 하단과 같다(11일 현재).

* 서울성경대학 강좌별 등록인원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등록인원
마가복음	월요일 오전 10시	이순환 목사	38명
베드로서	월요일 오후 8시	김명현 목사	51명
아가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65명
다니엘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41명
욥기(아담반)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89명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46명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9장 1 ~ 27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피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남아 기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를 약조하시라...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삼 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영영히 중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당신의 의함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9:1 - 27)



이종운 목사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백성은 가나안 땅 산지에 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실수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결국 속이는 꾀를 내었습니다.

삼 일 길 밖에 살던 그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어진 전대와 찢어진 기온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남아 기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지 못한 채 진멸하지 않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I. 이스라엘의 과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졌더라도 실패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일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잠 3:5).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모두 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마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했습니다(엡6:10 - 18).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으로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II. 과오의 결과

화친조약을 한 지 삼 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언약에 매어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게 되었습니다(19, 20절).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수많은 기브온 백성을 죽였습니다. 화친 조약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편에 서서서 오히려 이스라엘

을 심판하셨습니다(삼하 21:1).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그 심판은 다윗 때에 행해졌습니다. 사울의 피흘린 대가를 다윗 때에 기근으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기브온의 남은 백성과 합의하여 사울의 집을 심판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경우 그로 인한 쓴 열매는 거두어야 합니다.

III.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안히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 일로 이스라엘 집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게 됩니다(21절). 그러나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집을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청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기브온 사람과 라합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들은 대로 믿었고(24절)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인 자기 조국을 버렸듯이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자기의 동맹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기브온 백성은 한 번 결심한 것을 위해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 이방인인 가나안 족속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나누어질 때 기브온은 아론의 집에 주신 도시 중 하나를 취했습니다. 400년 후 다윗이 그 땅에 장막을 짓기도 했습니다. BC 500년 경 스룹바벨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한 삶 중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친하려 했던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악은 과감히 끊어야 하며 참된 것을 좇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적인 것만으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함 계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계)
성경봉독	인 도 자
메시지	인 도 자
찬 송	다 함 계
주기도문	다 함 계

메시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 다니엘 6장 1 ~ 10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 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들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매대와 바사의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다니엘 6장 1절-10절)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부끄러운 영광보다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출세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소유가 적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하

님께 맡기게 되니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되기 때문입니다(빌4:6).

2.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

었기에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기회인 것을 깨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도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 미래를 관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 까닭에 그를 지켜보던 다리오 왕도 결국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3.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

사람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는 가하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 몸에 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합3:17-19)이 우리의 입술에도 계속되길 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지우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사를 드린 수준 높은 다니엘의 신앙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부단한 기도와 굳건한 믿음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인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승화된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모 속에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절기인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바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기도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 세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참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기를 살필 때,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적신으로 나온 우리가 가진 것 중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목상할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언 - 봉사자가 바라 본 목회자세미나

“가르치기에 앞서 배우기 위해 오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가르치는 입장에 서신 목회자들께서 배우시기 위해, 더욱이 주일에 각 교회를 섬기시느라 피곤하실 터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마다 경향각지에서 오시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열 두 학기째를 맞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느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 감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와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김에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충실히 들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시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신도인 저희들 눈에 아주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강의 중간에 자리를 뜨시는 분들입니다. 학교의 강의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며 어렵게 모신 강사분들께도 결례가 될 것 같아 뉘우칩니다. 식사나 간식 시간 전후에도 봉사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가

끔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좀더 수준 높은 질서의식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목회자에게서는 ‘조금 성의만 있으면 좀더 품위있는 복장으로 참석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정말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존경심을 최대한으로 간직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것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강단의 갱신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앞날이 참으로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기독교학교 교장 내한

한국선교사 자녀 위한 한국인 교사 모집

파키스탄 기독교학교(초·중·고) 교장이 지난 주 내한 했다. 내한의 목적은 한국인 선교사의 증가로 파키스탄 기독교학교 내에 한국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 교사 한 명을 선발하는 일과 한국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20가정의 자녀를 위해 한국인 교사를 초빙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파키스탄 기독교학교에서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에 책임있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교사의 자격은 전공에 관련없이 대졸학력자로 영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파키스탄 기독교학교는 파키스탄 북쪽 머리(Murree)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선교사 400여 명의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는 서울교회 부속실로 하면 된다.

순례자 컬럼

위대한 유산

자녀에게 재산과 명예를 물려주고 후배에게 전통과 지위를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훌륭한 유산이라고 부른다.

물질적 유산이나 문화적 유산에 못지 않게 정신적 유산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좋은 유산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남겨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사람마다 생각의 규범에 따라 무엇이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이 되겠느냐가 결정 되겠지만 영원한 것은 신앙유산이다. 철 모르던 어린시절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부르던 찬송가와 함께 읽던 성경말씀이 그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유산을 받은 디모데가 이 땅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자.

야고보서

외우고 계십니까?

서울교회 설립 제 7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개최된다. 암송대회 진행은 교회학교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 결선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암송 범위는 이미 작년 11월에 제시한 바대로 야고보서 전 장(총 5장).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고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 듯.

동정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박근준 집사 가정에서 제공.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2.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3. 서울성경학교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